

순창군,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전국 최초 '유용미생물은행' 준공... 미생물 저장·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설 등 조성

순창군은 순창장류축제가 열린 지난 11일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바이오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용미생물은행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순창군 장류산업 특구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7,954.87㎡ 규모로 세워졌다.



순창군은 순창장류축제가 열린 지난 11일 국내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건물은 발효식품은 물론 일반식품, 농도, 심지어 축산분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천에서 추출한 미생물과 그 시료를 수집, 보존, 평가하는 첨단 복합 연구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미생물과 미생물 군집 시료를 50만건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80℃) 미생물저장시설 30기, 미생물 분리·보존·평가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 유용미생물은행 준공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사라져 가고 있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교적 저렴한 자원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순창군은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용미생물은행

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 시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미생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민원인 중심 신뢰받는 서비스 구현 앞장... 세번째 선정 영예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되며,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초 인증된 이후 2021년에 이어 이번까지 세번째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제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경험하는 민원실 내·외부 안전환경, 민원 행정 서비스, 체험·만족도 분야에서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남원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복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재인증된 현판을 수여받고 2027년까지 3년간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남원시는 △원스톱 복합민원 창구 설치 확대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로 원활한 민원 소통 △자율주행 AI방역로봇 운영으로 쾌적한 민원공간 조성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확보 및 장애인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무인 민원발급기 전체 읍면동 확대 설치 및 수수료 전면 무료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비치 △민원

처리상황 단계별 알림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민원인 중심의 신뢰받는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휠체어 이용자 및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다양한 높이의 민원인 식대 설치, 민원인터 북카페 어르신 및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자 도서' 비치, 민원인 대기 의자 교체, 남원 출신 김병중 작가의 그림을 민원실 입구에 전시하는 등 편안하고 품격있는 시민들의 소통·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 편의정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흥부마을 터울림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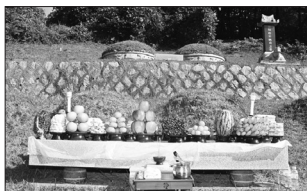
남원시는 지난 11일(음력 9. 9), 흥부의 출생지로 알려진 남원시 인월면 성산마을 일원에서 흥부마을 터울림(고유제) 행사를 최경식 남원시장, 이장군 흥부제전부위원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행사는 흥부정신을 계승하고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인월농악

단의 터울림(농악공연)을 시작으로 고유제,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장군 흥부제전부위원장은 "고유제를 통해 우애·나눔·보은·행운의 흥부정신을 이어받아 흥부의 선정을 배풀면서 주민이 참여해 즐기고 화합의 장이 되는 뜻 깊은 행사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흥부제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우리가 대표행사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이색 포토존 추억만들기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펼쳐진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는 매주나라, 국화거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포토존 등 10여 개의 다양한 포토존이 곳곳에 배치돼 순창장류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생샷을 찍으며 추억을 선사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옥정호 붕어섬 '국화 활짝'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에 조성된 국화가 활짝 피며 초절정 경관을 선사한다.

군은 이달 15일을 전후하여 국화가 만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보고, 국화가 지는 내달 초까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전시된 국화는 분화국 4만5,000여 개, 물방울·노깬포·초승달·하트·클로버·별 등 소형 현애국 300개, 젓소·산양·천사의 날개·한반도 지도·임실 고추·치즈 하트 등 중형 조형물 10개이다.

색상은 노랑, 빨강, 분홍, 보라, 주황, 흰색 등 6가지 색상을 안배해 배치했고, 노랑과 분홍의 산색 화분 5,074개를 각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 정문에는 하얀색의 젓소 현애 조형물과 한반도 지도 조형물이 배치된 화단 정원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며, 유람艇 정미원에 배치된 국화는 가을 정미와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

치즈캐슬 정문 앞 국화로 장식된 꽃탑에 들어서면 노랑, 빨강, 분홍, 보라, 백색의 5가지 색상의 원형 화분 1만 2,700개로 그려진 임실 치즈의 상징인 지정환 신부 초상과 두 마리 산양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국화는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역시 가을철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간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휴무 없이 운영한다.

군은 붕어섬 생태공원 입구부터 펼쳐진 1만2,250본의 국화 화분을 배치한 가운데 이달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는 붕어섬 방문자센터와 놀이터, 숲속도서관 옆에 조성된 잔디광장에 옥정호 가을 축제, 옥정호 호수 풍경, 옥정호 가을하늘을 테마로 색색의 국화 화분을 배치해 국화꽃의 장관을 연출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10월 운영시간은 09~18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1시간 전이다.

10월 한 달간은 월요일 휴일 없이 운영될 계획이며, 11월부터 기존대로 매주 월요일(단, 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은 정기 휴무로 운영된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6천 개 정도의 화분 국화를 더 생산하여 잠미공원과 옥정호 주요 노선에 추가로 전시한 만큼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며 "치즈테마파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만발한 국화와 함께 국화 향기 가득한 임실에서 무르익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119상황관리센터 이용 방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 상황관리센터의 이용 방법과 질병 응급처치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환자 이상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등의 활동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지도, 질병 상담, 병원 및 약국 안내 등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질병 관련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재홍관,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119상황관리센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도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개

임실군이 지난 10일 운양면 옥정호 출렁다리 일대에서 생활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매일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일회용품 규제 사항을 식품접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고 홍보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청정 임실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